아홉스님처럼…대중 속 상월결사 활발

상월선원 템플스테이 입재 · 아홉스님 다큐 선뵈

봉은사 상월템플스테이 시작
금토일 3일간 1일1식 좌선도
19일부터는 극장서 다큐상영
천막결사 일화 ASMR로 담아

노덕현 · 송지희 기자

2019년 11월 엄동설한을 딛고 불교중흥을 위한 수행결사로 진행된 아홉 스님들의 상월선원 천막결사. 500여 일이 지난 2021년 5월, 아홉 스님들의 결사정진을 되새기는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상월결사 중심도량인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4월 30일 '봉은사 상월선원 템플스테이' 를 시작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상시운영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아홉 스님을 본떠 1기로 9명의 재가불자들이 참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고아라 봉은사 청년회장, 김정숙 · 김하옥 상월선원 다도팀원, 청현지 수미산원정대 대원, 안현민 대불련 회장, 정상훈 상월선원 유튜브팀원, 최은주 봉은사신도회 사무총장, 김형종 씨 등이 입재했다. 이들은 묵언, 1일 1식 등 현대인들을 위해 정해진 청규 7가지를 서약하고 정진에 들었다.

1기로 참여한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아홉 스님이 정진한 마음을 이어 신심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참석 소감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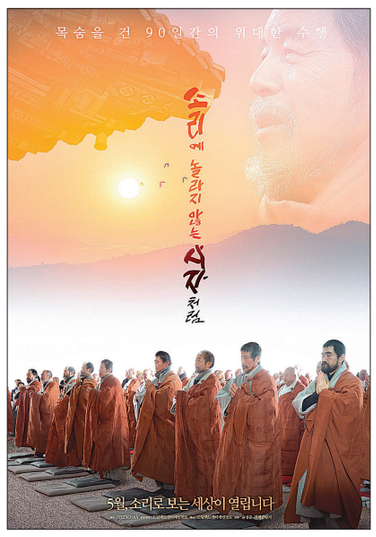
안현민 대불련 회장도 "천막결사를 보면서 청년불자로 꼭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제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던 찰나에 기다리던 일"고 소감을 밝혔다.

봉은사 상월선원 템플스테이는 현재 2기까지 회향한 상태이며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2박 3일간 진행된다. 새벽 4시 기상해, 새벽예불, 108배, 소나무숲길 포행 및 좌선 정진 등으로 진행된다.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같이 모든 일정은 묵언 속에서 하루 한끼 공양으로 이어진다. 참가자 외에도 지도법사로 천막결사 아홉스님 중 한 명인 인산 스님이 좌선 등을 지도하며 함께 텐트동에서 정진한다. (02)3218-4826

이와 함께 상월선원 천막결사 아홉 스님의 90일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영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 5월 13일 시사회를 시작으로 5월 19일부터 극장가에서 대중들을 찾아간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정진한 아홉 스님들의 소리로 담아낸 영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은 수행 과정을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감각적으로 연출, 편안한 목소리로 신뢰감을 주는 이금희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으로 구성했다. 이번 작품은 윤성준 감독이 제작했으며, 상영시간은 64분이다.


상월결사 중심도량인 서울 봉은사는 4월 30일 '봉은사 상월선원 템플스테이' 를 시작했다.



영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

상월선원 측은 "2019년 11월 11일을 시작으로, 90일간 하루 14시간 정진을 이어간 아홉 스님들의 특별한 여정이 생생하게 기록된 다큐"라며 "인간의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스님들의 수행과 성찰을 통한 위로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는 5월 11일 상월 만행결사의 일환으로 '천년 숲을 걷다' 봉선사 자비순례를 진행했다. 이번 순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상월결사 자비순례 일환으로, 교구본사 차원 참여로는 선운사, 해인사에 이은 세 번째다. 봉선사 순례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동안 '비밀의 숲' 으로 불려온 광릉숲 내에서 순례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주지 초격 스님은 "천혜의 보고인 국립수목원 광릉숲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작은 풀 한 포기조차 해칠 수 없는, 어느 누구의 발길도 깊숙이 닿지 않았던 곳"이라며 "이번 순례를 위해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약을 진행한 결과 순례대중들이 국난극복을 발원하며 천년의 숲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상월선원 순례에 담긴 의미를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순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녹음이 푸른 계절, 온전히 자연만으로 가득한 천년의 숲에서 이어지는 이번 순례를 통해 참여대중들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계기로서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기자. 참여하지 못한 불자와 국민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만으로도 마음 속 짐을 덜어낼 수 있다. 국민들이 국난 극복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주 상보〉

수진사 방화범 장모씨 '불상훼손죄' 형량추가

최종적으로 2년 8개월 선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찰에 불을 질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일명 '수진사 방화범' 장모씨가 일반건조물방화죄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불상훼손에 따른 재물손괴죄도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모씨가 지난해 9월경 수진사 경내 와불상에 돌을 던져 불상 8개를 파괴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불상을 부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장모씨는 지난해 9월 경 수진사 경내 와불상에 돌을 던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범행 이유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재산이나 법익을 가볍게 여기는 점에 비춰 책임이 가중돼야 할 뿐 아니라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관련 사건의 경과 등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방화로 인한 2년 6개월형에 '재물손괴죄' 로 인한 2개월형이 추가되면서, 장모씨는 1심 최종 2년 8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서 '세계불교' 만난다

조계사 · 조계사청년회, '세계일화' 기획

5월 매주 토요일 특별법회
불교국가 스님 초청해 법문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세계불교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법석이 마련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질적인 성지순례는 불가능하지만, 해외 불교국가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세계일화(世界一花)' 의 가르침을 되새긴다는 취지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와 조계사청년회(회장 이수민)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경내 대웅전에서 '늘 이웃과 함께, 청년불자를 위한 특별법회 〈세계일화(世界一花),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다!〉' (이하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5월 29일까지 총 4회 진행될 특별법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티베트, 네팔, 대만 불교의 스님들을 초청해, 해당 국가의 불교 문화를 접하고 부처님 오신날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5월 8일 아산 스리랑카사찰 마하위하라 주지 담마끼띠 스님의 스리랑카 불교 이야기를 시작으로, 5월 15일 부산 광성사 주지 소남 스님의 '티베트 불교' , 5월 22일 서울 불광산사 주지 의은 스님의 '대만 불교' , 5월 29일 동국대 불교학박사 각려효 스님의 '베트남 불교' 주제 법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 부처님오신날의 특징과 한국불교와의 차이점, 그들이 받아들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회에서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떠나는 랜선 성지순례' 도 선보인다. 해당 불교 국가의 사원과 유적지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소개하며 해외여행 특히 성지순례를 떠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랜다는 취지다. 그간 해외 불교 성지, 불교 사원을 다녀온 법우들의 여행 사진과 영상도 함께 소개하며 추억 여행을 떠나는 시간도 마련했다.

특별법회를 기획한 이수민 조계사청년회 회장은 "매년 봉축기간 마다 법우들과 함께 연등회를 준비하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 해외 불교국가 스님들을 조계사로 모셨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법회를 준비할 예정이며, 특별법회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기획 중이니 청년불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실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법회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되지만 사찰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유튜브 '조계사청년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송지희 기자

민추본 인천본부 출범…본부장 선일스님

5월 4일 인천 법명사서 발대식
부산 이은 두 번째 지역 본부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가 인천본부를 출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의 지역적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민추본 인천본부는 부산에 이은 두 번째 지역본부다. 인천 보명사 회주 선일 스님을 초대 본부장으로 지역 불자들을 상대로 한 통일 인식 개선 및 관련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민추본은 5월 4일 인천 법명사에서 '민추본 인천본부 발대식' 〈사진〉을 진행했다. 민추본 인천본부 초대 본부장에는 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이 임명됐다. 본부장 월우 스님은 선일 스님에게 임명장과 '인천지역본부 현판' 을 전달하며 "인천지역에서 통일정토 구현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본부장 선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인구 300만의 대도시 인천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실향민이 다수 거주하는 특별한 지역"이라며 "인천에서 평화통일 열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추본은 인천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연내 강원본부와 제주본부 등 지역본부를 추가로 발족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